

광주경총, 임재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초청 금요조찬포럼

“SMR,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현실적 대안”

(소형모듈원자로)

“잠재력이 높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혁신형 SMR 개발과 실증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임재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2회 금요조찬포럼에서 ‘SMR 시대, 광주전남의 선택’ 주제 강연을 통해 “SMR (소형모듈원자로)을 국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SMR이 주목받는 배경 △글로벌 시장 전망 △국내의 기술개발 동향 및 기업 참여 현황 △수출 산업화 전략 △호남권 실증단지 유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SMR는 전기 출력이 일반적으로 300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자력 발전 시스템이다. 이는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한계를 보완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재생에너지 간헐성·공급 한계 보완 ‘실증 부족’ 등 국내 한계 지적도...“지역 새로운 경쟁력 될 것”

완한 SMR은 ‘작지만 유연한’ 특성을 앞세워 미래 전력 시장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글로벌 SMR 시장은 연평균 8.9% ~ 27.7%에 이르는 고성장이 전망되고 2034년에는 약 14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 본부장은 “SMR은 단순히 축소된 원전이 아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산업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SMR의 핵심을 ‘경제 모델 변화’로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기존 원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구조였다면, SMR은 여러 기기를 반복 생산하는 ‘연속 생산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지면서 민간 참여가 쉬워지고 산업 생태계가 훨씬 다양해

질 수 있다. 이에 맞춰 원자력 산업의 거버넌스와 협력 구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SMR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급증을 지목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과 직접 협력하거나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한계를 보완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본부장은 해외 주요 SMR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실증 부족’ 등 국내 SMR 산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SMR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의 인허가를 받았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상용화 기회를 놓쳤다”며 “실증 경험이 있어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SMR 경쟁은 누가 먼저 건설해 실증을 보여주는 나만의 싸움이다. 이후에는 원가 경쟁력과 시장 맞춤형 설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호남권에도 관련 국책기관과 실증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본부장은 “에너지 비용 절감, 무탄소 공정을 통한 신시장 선점,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 등의 경쟁력을 갖춘 SMR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 발전 수익, 수소 및 공정열 판매 이익을 직접 배당 받는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임재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SMR 시대, 광주전남의 선택’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월드컵 축구 독창적 캠페인 공개

아틀라스, 축구 도전기 수비수 속이고 ‘라보나킵’



현대자동차가 첨단 로보틱스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구를 연계한 독창적 캠페인을 선보이며 피지컬 AI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했다.

현대자동차는 다가오는 ‘FIFA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로 보스니아나미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동작 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차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 스쿨 오브 풋볼 영상은 아틀라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론칭 필름부터 각종 축구 동작 연습 장면을 촬영한 훈련 영상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론칭 필름은 아틀라스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담긴 인류의 다양한 감정·에너지와 선수들의 역동적 움직임이 직접 보면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훈련 영상에는 발놀림·패스·슈팅 등 축구의 기본 동작부터 다리를 꼬아 솟이나

크로스를 하는 축구 개인기 ‘라보나킵’ 등 수준 높은 동작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점차 정교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을 생생히 담았다.

지난 29일 공개된 최종 영상에는 반복 훈련을 통해 축구의 역동적 매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한 아틀라스가 기존 라보나킵에 수비수를 속이는 페인트 동작을 더한 고난도 기술 ‘고스트 라보나킵’을 성공시키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연출된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컴퓨터그래픽(CG) 효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CES 2026에서 처음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다양한 동작을 스스로 학습해 실제 인간처럼 구현해 내는 모습을

활영했다. 아틀라스는 실제 축구 선수의 동작 데이터를 모델링 한 뒤 강화학습을 통해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최적의 동작을 도출해 냈다.

지난 28일까지 공개된 론칭 필름과 3편의 훈련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300만회를 돌파했다.

현대차는 오는 4일 캠페인 준비 과정에 아틀라스의 훈련 등을 주도한 보스니아나미스 관계자의 인터뷰가 담긴 메이킹 필름을 추가로 공개해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의 기획 의도, 휴머노이드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학습·훈련의 중요성, 앞으로의 로보틱스 사업 비전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중기부, K-브랜드 수출전략품목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의 4대 분야에서 국가대표 K-브랜드를 육성한다.

중기부는 오는 25일까지 ‘K-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은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는 K-소비재 분야 혁신 제

품이 글로벌 일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24년 처음 시작했다.

시행 첫 해 뷰티·푸드 분야 30개 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했고, 지난해에는 패션·라이프 분야까지 넓혀 총 80개사 상품을 추가로 선정 및 지원했다.

올해는 4대 소비재 분야의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혁신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과 관련한 서면 평가·외국인 소비자 대상 경쟁력 평가·글로벌 유통기업 및 전문가 품평회를 거쳐 200개 내외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K-수출전략품목으로 선발될 경우 유통 브영, 신세계백화점, 무신사를 포함한 협력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분야별 맞춤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공공 비정규직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처우 개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2027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립공립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앞서 노동부는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

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 (38만2000원) △3~4개월 9.5% (84만6000원) △5~6개월 9% (126만원) △7~8개월 8.5% (162만2000원) △9~10개월 8.5% (205만5000원) △11~12개월 8.5% (248만8000원) 등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로또 1등 10명...당첨금 각 28억2000만원

제122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6, 13, 17, 26,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15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2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57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52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고정 당첨금 5000원)은 280만3464명이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